

## 이달의 이슈 102

## 아시아 핀테크의 테스트베드, 서울



## 윤형호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younh@si.re.kr

### 1. 스마트폰 간편결제로 세금 납부하는 시대

매월 말일이면 각종 공과금과 지로요금 등을 납부하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이던 은행창구의 모습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은행에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도 카드대금이나 계좌이체를 넘어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가 작년 말부터 도입한 ‘간편결제 세금 납부 서비스’는 카카오페이, SSG페이, 페이코(PAYCO) 등으로 모든 지방세와 상하수도 요금, 주차위반 범칙금 등의 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공공기관 중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결제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어 이용자가 매월 늘어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간편결제를 통한 세금 납부는 6만여 건, 납부 누계액은 90억 원에 달한다(서울시, 2016).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오래곤 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최근 연구: 서울시 생활산업 육성방안 연구, 불법사금융 피해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등

①  
서울시, 2016.6.30.  
내 손안에 서울

최근에는 공무원들이 복지포인트로 받는 온누리상품권의 일부를 가상화폐인 '에스코인(S-coin)'으로 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온누리상품권 대신 에스코인 앱을 통해 QR코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상인들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고 상품권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불편도 줄일 수 있다. 에스코인과 함께 모바일 소액 외환송금이나 중국인 관광객 간편결제시스템 사업을 핀테크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① 이처럼 서울시는 새로운 금융시장의 가치를 인식하고, 미래 유망 산업인 핀테크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2. 서울에는 어떤 핀테크 기업들이 있나?

현재 서울에 소재한 핀테크 기업들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통계정보나 자료의 한계가 있다. 핀테크 산업의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하고자 핀테크 산업협회 회원사, 민간은행의 핀테크 랩에 지원한 회사의 수를 종합하면 핀테크 관련 기업은 약 300개로 추산된다. 기업 규모는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장부터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5년 이내에 핀테크 관련 기업 수가 1,000여 개, 관련 종사자 수가 50,000여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핀테크산업협회 회원사에는 핀테크, 금융, IT 등 다양한 업종의 약 110개 기업이 있으며, 주력 사업은 지급·결제 분야가 20개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P2P 대출(19개), 송금(17개), 자산관리(14개)가 있다. 이외에도 보안·인증(12개)과 금융 SW(8개) 업체가 있다. 대체로 결제, P2P 대출, 클라우드 펀딩, 송금 등 금융거래(B2C) 핀테크 업체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2008년 이후 외국에서 금융거래 핀테크 사업이 정착되고 소매금융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국내 스타트업이 쉽게 사업모델로 선택할 수 있었고 창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소비자들의 금융거래 방식이 온라인이나 모바일 거래 형태로 변화하면서 대형 은행들도 온라인뱅킹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주력하며 핀테크 시장을 확대해가고 있다. 은행들은 온라인뱅킹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원가입을 유도하는데, 포털사와 유사한 영업방식으로 금융거래 핀테크 사업

에 경쟁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은행뿐 아니라 증권회사(키움증권, 유진증권 등)도 크라우드 펀딩 분야에 진출했으며, 대형 포털사인 다음·카카오, 네이버는 많은 회원 수를 바탕으로 지급이나 송금 시장과 같은 금융거래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특히, 지급·결제 분야는 온라인·모바일 결제 시장이 매우 큰 규모로 형성되어 있어 삼성전자, 통신사, 유통사, 포털사 등 대기업들이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거래 영역에 대형 기업들이 진출하다 보니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창업 초기부터 경쟁에 직면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금융거래 핀테크 기업들이 많다 보니 벤처캐피털들의 투자도 금융거래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P2P 대출, 크라우드 펀딩, 송금과 같은 금융거래 비즈니스 모형이 해외에서는 이미 검증되었고 안정적인 운영시스템도 구축되었다. 국내 시장도 수요가 증가하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국내에서 처음 등장한 P2P 금융 분야는 2016년 8월 기준 업체 수가 70개를 넘어섰고, 대출취급액은 2,800억 원을 기록했다.<sup>②</sup> 벤처투자업체들은 P2P 금융업의 성장세에 주목하여 관련 업체들에게 활발히 투자하고 있다. ‘어니스트펀드’는 최근 KB인베스트먼트, 신한캐피탈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60억 원 투자를 유치하였고, P2P 플랫폼 ‘펀다’는 30억 원 신규투자를 유치했다.<sup>③</sup> 반면, 국내 및 서울의 비즈니스지원(B2B) 핀테크는 기술개발비, 공간, 금융기관과의 연계, 해외수출 등 많은 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함에도 외부투자는 제한적이다. 금융 IT, 보안, 빅데이터, 생체인식, 인공지능 등 기술개발 비즈니스지원 업체들은 해외 데모데이를 통해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1〉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원사 현황

주력사업 분야	회원사 수(개사)
지급·결제	20
P2P 대출	19
크라우드 펀딩	5
송금 및 가상화폐	17
자산관리	14
보안인증	12
기타	11
금융 SW	8
은행	4
계	110

<sup>②</sup> 아시아경제, 2016.9.18

<sup>③</sup> 현대경제신문, 2016.10.3

핀테크산업협회 회원사 및 은행협력 업체를 종합한 총 112개 핀테크 기업들의 소재지를 분석해보면 주로 강남구, 영등포구, 구로구 등 3개 권역에 밀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소액송금, 간편결제, P2P 대출, 클라우드 펀딩과 같이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에서 회원을 모으고 영업을 하는 금융거래 핀테크 회사들은 회사 이미지와 투자자와의 네트워크를 위해 강남 혹은 도심 입지를 강력히 선호하고 있다. 특히, 직원들의 강남근무 선호도가 높는데 스타트업의 특성상 직원이 회사 성장의 가장 큰 자산이므로 그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증권 금융 SW 회사들과 기술 핀테크 회사들로 구성된 비즈니스지원 핀테크 회사들은 저렴한 임대료, 여의도 금융기관과의 입지적 근거리, 구로 디지털단지의 IT 전문인력 활용 등의 이유로 대부분 영등포 및 구로디지털단지에 입지하고 있으며 금융 IT, 보안, 빅데이터, 인공지능, 생체인식, 가상화폐 등 핀테크 기술 업체들이 해당된다.

핀테크 업체 136개 분포 서울 112, 분당(판교) 12, 기타지역 7, 기타 5

서울시 구별 핀테크 업체 분포 영등포, 구로, 금천은 비즈니스지원 핀테크 강남구, 중구는 금융거래 핀테크



자료: 핀테크산업협회 제공자료, 각 은행의 핀테크 랩(Lab) 홍보자료

〈그림 1〉 서울시 핀테크 업체 분포도

### 3. 전후방 협력 관계

핀테크 기업들이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과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금융당국이나 관련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가 없으면 현실적인 사업운영이 어렵다. 일례로 2005년 국내 결제업체 ‘페이게이트’가 웹 표준을 기반

으로 카드번호와 CVC(Card Validation Code)만을 이용한 결제기술 개발에 성공하였으나 보안성 심의과정에서 공인인증서 강제사용 규정을 통과하지 못하여 상용화되지 못했다. 이처럼 핀테크 사업은 단순히 특정 기술이나 데이터, 플랫폼으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금융기업, 핀테크 업체들과의 연계를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금융거래 핀테크 업체들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마케팅 활동으로 회원수와 거래량을 늘리는 영업활동을 할 때에는 전방에서 은행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간편 소액송금 업체는 송금을 위해 은행망을 이용해야 하고, 해외송금도 현행 외환거래법상 반드시 은행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P2P 대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체로 등록해야 하는데 일부 P2P 대출업체는 대부업체로 정식 등록하지 않고 은행이나 저축은행을 통한 우회 대출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금융거래 핀테크 회사들은 후방에 있는 기술 핀테크 지원도 필요하다. P2P 대출이나 크라우드 펀딩은 대출 이용자들의 신용을 파악하기 위해 소득, 부동산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기술'과 부도율 계산 후 대출여부를 결정해주는 '인공지능 기술'은 핀테크 업체들이 기존 금융기관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핵심이 되는 요소이다. 이 때문에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회사들이 금융거래 핀테크 업체들과 제휴를 맺고 있다. 실제로 강남구에 위치한 '페이록'은 스마트폰 결제시스템을 개발하고, 카드결제 대행을 위해 PG업체인 '한국사이버결제'와 수기사인 본인인증을 위해 'KTB 솔루션'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스마트폰 결제 앱 서비스를 선보였다.

#### 4. 핀테크 산업의 다층적 계층구조와 다양한 유형

서울의 핀테크 산업은 어떤 구조를 형성하고 있을까? 가장 상위층에 있는 것은 은행, 카드사, 증권사 등으로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보아왔던 금융기관들이다. 은행들은 모바일 뱅크를 만들고 소액대출 시장에 진출하여 일부 P2P 업체들과 경쟁에 나서고 있고, 증권사들도 크라우드 펀딩 영역에 진출했다. 또한 은행과 증권사들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통해 자신들의 핀테크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기업은행은 2015년 11월 판교에 '핀테크 드림랩'을 설치하여 사무공간과 컨설팅, 투자 및 용자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 핀테크 드림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주)씨애펙스와 (주)마크마운트, (주)엑스엔지니어링, (주)희남 등 4곳이 선정되어 가장 먼저 입주하였다. KB은행은 핀테크 스타트업 프로그램으로 'KB 스타터스 밸리'를 시행했다. 2015년 3월 오픈한 'KB핀테크 HUB센터'는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

해 멘토링, 투자 연계, 제휴사업 추진 등을 하고 있다. KB금융은 ‘터치웍스’, ‘락인컴퍼니’, ‘센드버드’, ‘라인웍스’를 선정하여 계열사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의 제휴 파트너로 참여시켰다.

핀테크 산업을 구성하는 업체는 지급·결제회사, 금융 SW 회사, 금융거래 핀테크 회사, 비즈니스관리 핀테크 회사, 기술 핀테크 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금융 SW 회사들은 과거 은행과 카드사의 금융 IT를 지원하면서 모바일 banking 관련 기술들을 축적해왔으며, 현재 금융 IT 솔루션 제공과 더불어 금융거래 핀테크에 직접 진출하기도 한다. 금융거래 핀테크 회사들은 P2P 대출, 송금, 해외송금, 로보어드바이저, 클라우드 펀딩 등의 분야로 소규모나 신생업체들이 많으며 외부 투자를 통해 사업을 본격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비즈니스관리 핀테크 회사들은 직접적 금융거래가 아니라 가맹점들에게 지급·결제, 고객관리 및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며, 주로 프랜차이즈 업체나 개별상점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 기술 핀테크 회사는 보안, 빅데이터, 생체인식, IoT 분야 등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 5. 서울 핀테크의 미래 : 도시화, 집적지 조성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금융기관, 협회, 학계 등에서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의 핀테크 산업에 어떤 육성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까? 먼저, 서울시가 가진 강점을 활용하여 ‘핀테크 도시화’를 추진할 수 있다. 2000년 중후반 서울시가 여의도를 국제금융도시로 만들 계획이었으나 은행들의 경쟁력 부족과 금융규제 등 구조적 요인의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는 핀테크 도시화에 필요한 IT 및 모바일 인프라, 기술창업 회사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6년 91%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금융거래와 물품구입이 증가하고 있다.<sup>4</sup> 올해 7월에는 영국의 핀테크 육성기업 엑센트리(XNtree)가 서울에 ‘허브아시아’를 세우고 한국 및 아시아의 핀테크 회사를 육성하기로 발표하였다.<sup>5</sup> 엑센트리가 서울을 허브 설치 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배경은 ‘탁월한 기술 업체 확보, 정부의 지원, 우수한 연결성’ 등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런 강점들을 토대로 향후 허브아시아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우수기업을 육성하고, 국내 핀테크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과 글로벌 기업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런던과 같이 민·관이 합동하여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여 아시아를 이끄는 ‘핀테크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sup>4</sup> 디지털타임스, 2016.6.30

<sup>5</sup> 경향신문, 2016.7.19

핀테크 도시화의 하나로 산업직접지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서울 소재 핀테크 기업은 112개이며 주로 강남, 영등포, 구로에 밀집되어 있었다. 특히, 기술 및 금융 SW영역인 비즈니스지원 핀테크 기업들은 여의도 금융기관들과의 협력, 구로디지털단지의 IT인력 활용을 위해 영등포 및 구로에 위치하고 있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화폐 등의 기술 핀테크 분야는 향후 핀테크 산업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할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신생기업이 많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여의도 혹은 인근 영등포구에 핀테크 집적지인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식산업센터에는 금융거래 핀테크 회사보다 금융 IT, 보안, 빅데이터, 생체인식,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을 개발하는 비즈니스지원 핀테크 회사를 유치하는 것이 지리적으로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집적지 조성을 통해 기존 핀테크 업체와 신생업체들을 동시에 유치하여 상호 정보교류와 기술협력의 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6. 핀테크 테스트 베드(Test-bed) 설치

핀테크 기업들은 혁신적인 금융 기술을 개발하고도, 실제 금융전산망에 연동되어 작동하는지를 테스트해볼 기회가 많지 않다. 특히, 공공데이터는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이를 활용한 핀테크 기술 개발이 힘든 실정이다. 서울시가 테스트베드를 설치하고, 공공데이터를 제공한다면 핀테크 사업모델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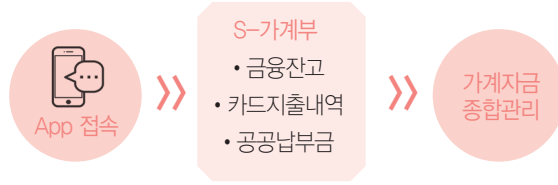
사업모델로는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서울시 가계부’ 사업이다. 현재는 핀테크 업체가 개인 동의를 받고 금융거래 및 잔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만 공과금 관련 정보에 접근권한이 없으며, 정부의 공공정보 개방 계획도 아직 구체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우수 기술을 확보한 핀테크 업체에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면 핀테크 업체는 이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공과금 납부정보를 분석하여 가계부에 반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민들은 가계부 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금융잔고, 카드사용내역, 공과금 등의 지출내역을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가계자금종합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사업모델 예시는 ‘고객관리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이다. 대형유통업체나 프랜차이즈는 고객관리와 마케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개인상점은 이러한 비즈니스 솔루션을 도입하기 힘들다. 전통시장과 지역 상인들이 고객관리 및 마케팅 서비스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예를 들면 국내 핀테크 업체의 ‘터칭’이라는 서비스는 결제 고객정보를 축적하여 개별상점이 고객관리와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고, 개인 맞춤형 모바일 마케팅 서비스를 하고 있다. 서울 시도 지역상권 협의회, 핀테크 기업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솔루션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에게 보급한다면 경제활성화와 더불어 시민들의 살림살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서울시 가계부 App 개발 (S-가계부)

공공데이터 연계를 통한 '가계자금종합관리서비스' 제공



시민들의 자금관리 효율화

〈그림 2〉 서울시 가계부 사업모델 모형(예시)



자료: 터치웍스 공식 홈페이지

〈그림 3〉 터치웍스의 '터칭' 서비스

### 참고문헌

1. 경향신문, 2016.7.19, "글로벌 핀테크 육성기업 '엑센트리', 서울에 '허브아시아' 출범"
2. 디지털타임스, 2016.6.30,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 70% 육박"
3. 서울시, 2016.8.2, 서울시뉴스, "서울 세금, '씩(SSG)'으로도 낼 수 있어요"
4. 아시아경제, 2016.9.18, "P2P 대출시장 급성장...투자자 피해 우려도 커져"
5. 통계청, 2014, 사업체조사
6. 통계청, 2014, 지역소득 통계
7. 현대경제신문, 2016.10.3, "P2P금융 인기몰이...잇따른 투자 '러브콜'"